

주간기도정보

2026. 3. 31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을 위한 기도 자료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매년 자살로 작은 도시 사라지는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한다”

살롬나비, OECD국가 자살률 1위 한국 사회에 대한 논평



살롬을꿈꾸는나비행동(살롬나비)은 최근 논평을 통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은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며, “1년에 자살로 사라지는 인구는 대한민국에서 작은 도시나 읍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살롬나비는 2023년 자살사망자 수가 1만 3,978명으로 2022년 대비 1,072명(8.3%) 증가했고, 2024년도 자살사망자 수는 1만 4,872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으며, 50대가 최다이고 40-50대가 전체의 40%이며, 매일 39.5명이 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롬나비는 지난 21일 BTS 관련 공연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서울 광화문에 집중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다른 한편으로는 삶에서 낙오하고 삶을 포기하는 자살자들이 글로벌 으뜸이라는 우리 사회의 불행한 사실은 우리 문화의 역설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살롬나비는 이에 대해 “기독교만이 자살에 올바른 원인규명(인간 한계 인정)과 대책(하나님의 품, 사랑의 공동체)을 동시에 제시해준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말라고 한대(시 131:1).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다(살전 5:18). 성경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씀한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고 밝혔다.

또한 성경 속 요셉의 삶을 예로 들며, “요셉은 고난을 당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적 자원으로 견디어 냈다”며, “그에게 내적 자원이란 사랑받았던 경험 또는 아버지의 삶에서 물려받았던 신앙이었다”고 했다. 이어 “인생은 누구에게나 결핍과 상실, 버림받음과 실패의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며, “이때, 인간은 그의 내면세계에 의지해야 한다. 풍부한 내적자원이 삶을 지탱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살롬나비는 “신앙 공동체는 말씀을 삶과 몸으로 살아내는 공동체”라고 했다. 이어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심비(心碑)에 그리고 우리의 몸에 삶으로 기록되어질 때 그것은 내적 자원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내적자원이 풍부한 사람은 상실과 실패의 순간에 약속의 소망의 실체를 내부에 간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공동체가 살아 있고 제대로 기능하는 길만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살롬나비는 “오늘날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한국사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책임은 막중하다”며, “한국기독교는 복음의 메시지로써 삶의 현장에서 유리되고 있는 주변 이웃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라며, “기독교는 경쟁 사회의 무한 대립 속에서 사랑과 긍휼이라는 상생과 공생의 삶의 윤리를 강조한다”고 했다. 또 “이 윤리는 사회를 사랑방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서 형성된다”고 덧붙였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로새서 1:27)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세기 50:19-20)

하나님,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매년 자살 때문에 작은 도시나 읍 단위의 인구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요셉과 같이 인생의 모진 고난과 험한 풍파가 밀려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십자가 복음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이신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절망에 갇혀 스스로를 해하려는 많은 영혼들을 속히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북한 해킹, 18개월마다 전술 전면 교체”… 구글 전문가 ‘전례 없는 위협’ 경고

탈취 계정·가짜 화상회의… 정교해지는 침투 수법



북한 해킹 조직이 약 18개월마다 공격 전술을 통째로 바꾸는 전례 없는 속도로 사이버 위협의 판을 뒤엎고 있다고 구글 클라우드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경고했다. 제이미 콜리어 구글 클라우드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담당 수석 위협 정보 고문은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러시아-중국 이란과 달리 북한은 단순히 전술이나 기법을 변화시키는 수준을 넘어 공격의 범주 자체를 바꾼다고 강조했다.

콜리어 고문은 10년 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금융망 공격 이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랜섬웨어, 가상화폐 탈취, IT 인력 위장 취업 등 전혀 다른 유형으로 확장돼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보기 어려운 독특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 18개월마다 전술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다음에 어떤 공격이 등장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 수법도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리어 고문은 북한이 번역이나 피싱 콘텐츠 제작을 넘어, 가상화폐 업계의 저명 인사를 사칭한 딥페이크 영상까지 제작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능력과 의도가 분명히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 해커들은 텔레그램이나 이메일 계정을 탈취해 신뢰를 확보한 뒤, 피해자를 가짜 화상 회의로 유인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상 통화 중 ‘오디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특정 명령어 실행을 유도하는 이른바 ‘클릭픽스(ClickFix)’ 기법이 대표적인 위협 신호로 꼽힌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회공학적인 공격은 아직 대규모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시작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콜리어 고문은 이러한 공격 방식이 북한을 넘어 랜섬웨어 조직과 일반 사이버 범죄 집단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가상화폐를 주요 표적으로 삼는 이유에 대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유통되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자금 세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보안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스타트업이 많다는 점도 주요한 취약 요소로 지목했다. 그는 이 같은 사이버 활동을 통해 확보된 자금이 북한 정권 유지에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콜리어 고문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방어자들 역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위협 중심의 보안 전략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빠르게 진화하는 공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동적 방어를 넘어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출처: VOA 종합).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마서 16:19-20)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시편 97:10-11)

하나님, 과학과 AI 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하는 이때 북한의 해킹과 사이버 범죄 또한 전례 없는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공산주의 사상 아래에서 정의와 정직이 희귀해져 버린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들의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데 지혜롭기만 한 북한 정권을 엄히 꾸짖으사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북한의 교회를 보전하사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죄악으로 어두운 그 땅에 복음의 빛을 뿌리게 하소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예수교회의 순종을 통하여 사탄을 그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숏폼 보느라 손에서 못 놓아’… 청소년 43%,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전체는 줄었는데 청소년만 증가… AI·숏폼 확산 등 디지털 이용 환경 급변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디지털 취약계층(장애인·고령층·저소득층 등)의 정보화 수준은 꾸준한 개선세를 보여 상반된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디지털포용 관련 주요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등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디지털 접근·역량·활용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7.9% 수준으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해 5년 연속 개선세를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디지털 역량은 65.9%, 디지털 활용은 80.5%, 디지털 접근은 96.6%로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소폭 향상됐다.

계층별로는 고령층이 71.8%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으며, 농어민 80.6%, 장애인 84.1%, 저소득층 97% 순으로 조사됐다.

웹사이트가 국가표준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70.4점으로 전년 대비 3.7점 향상됐다.

만 3세에서 69세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위험군 비율이 22.7%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하며 5년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전반적인 과의존 수준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청소년은 4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유·아동(만 3-9세)의 과의존 비율도 증가 추세를 보여 저연령층의 디지털 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유·아동의 과의존 증가 원인으로는 숏폼 콘텐츠 확산과 이용 플랫폼 다양화,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 등 디지털 이용 환경의 변화가 꼽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층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 디지털 배움터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 과의존 해소를 위해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지표들이 지속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디지털포용법을 중심으로 건강한 포용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에베소서 4:14-15)

내 아들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잠언 3:21-22)

하나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다음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야 할 자녀들을 미디어 중독으로 내몰아 세상의 재미와 가치관에 빠져 요동하게 하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파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깨어 어린 자녀들을 방임하지 않고 진리로 양육하되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싸울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지혜 되신 주의 말씀을 자녀들의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진리가 결론이 된 군사들로 세워 주소서. 이 땅의 다음세대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주님의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 선교완성의 그날을 향해 달려가게 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